

## 단과대학탐방

## 인문대학 교무부학장님과의 인터뷰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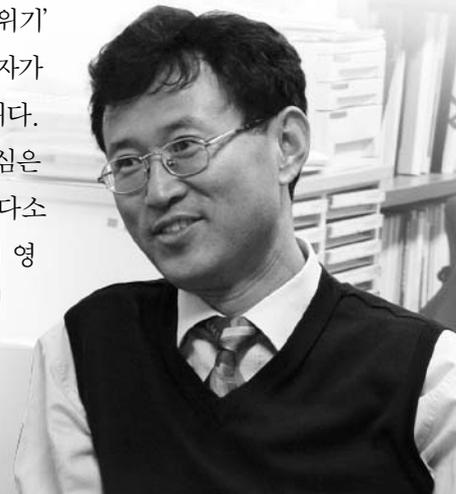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인문대학의 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과 방향, 개선 활동 사례 등에 대하여 김창민 인문대학 교무부학장에게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인터뷰 이희원\*

● ● ●  
김 창 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교수  
인문대학 교무부학장

세간에서는 ‘인문학의 위기’ 라는 말이 종종하곤 하는데요, 교육 개선 정책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대학의 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문학의 위기’ 라는 말이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문학의 위기’ 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거나 인문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만, 인문학에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대학 차원에서 보면 읽고 쓰기에 대한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많은 학부모의 글 읽고 책 쓰기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큼니다. 초등학교생들부터 독서와 글짓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읽기·글 쓰기에 대한 수요나 욕구가 국가적으로 지금처럼 컸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술지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서 국문학과나 철학과 학생들은 요즘은 사교육 시장에서 매우 인기라더군요.

또 지난 9월, 우리 인문대학이 국내 처음으로 개설한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지원해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석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TV에서 주역이나 논어 강좌를 방영하면 시청율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문학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고, 대중들과 대화가 부족했고, 인문학의 존재를,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소홀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을 사회에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인문대학의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 매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그룹 학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요즘은 스스로 교육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하시는 교수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공과목에 대해서 e-learning을 잘 활용하면 지원금도 드립니다. CTL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문학 특성화 사업을 위한 웹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과물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인문대학에서도 교육매체를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공 학점이 63학점에서 42학점으로 낮아짐으로써 예전에 비해서 전공 학점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전공

관련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원전 읽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의 학생을 모아서 선생님과 원전을 읽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많은 수업시간에 꼼꼼히 잘 지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학생들과 텍스트를 꼼꼼히 읽으면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이런 것이 인문대 공부구나’라는 소감을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로 신설된 것으로 예전과 비교해서, 선생님들께 많은 자극을 주고, 실제로 내실 있는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성화 사업은 금년이 3년차이기 때문에 내년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교육 개선 활동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특강과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인문대학 졸업생들 중 20명 멘토로 선발해서 재학생들과 연계시킵니다. 인문학 포털 사이트로 접속하면 멘토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거의 들어가질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 밖에 인문학 협동강좌를 운영합니다. 두 선생님이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토론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협동강좌가 새로운 형태로 과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인문대학 교수님들의 강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대학에서는 강의를 잘한다고 포상하는 제도가 없어서 강의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연구의 경우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문대학에서는 선

생님들이 방학 때 해외로 나갈 때 연구비를 받지 못하여 자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문대학에서는 부족하지만 학기당 대여섯 분께 방학 때마다 해외 활동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저서를 내시면 사후에 포상도 해드립니다. 앞으로 재원이 있으면 이러한 지원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업과 관련하여 선생님들께 드리는 인센티브로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전 원전읽기’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는 선생님들의 학기당 책임 강의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좌를 맡은 선생님들께는 약간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그 정도가 수업에 관한 인센티브인 셈이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께 강의를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강의 잘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 아쉽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러닝 지원 시스템인 eTL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로부터 ‘생각보다 좀 쓰기 어렵다’ 혹은 ‘이거 바꾸긴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 는 얘기를 편한 자리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면 공식적인 항의가 될까봐 그러신지, 아니면 요즘은 eTL 시스템에 적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불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오래 지속되면 저절로 다 적응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CTL과 협력할 사항이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후에 특성화 사업이 종료되어도 저희가 하는 콘텐츠 개발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e-learning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교내 구성원들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인문학 콘텐츠는 사실 교양, 기초 학문 차원에서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여 그 성과를 확인하고 있지만 사업이 끝나면 eTL에 옮기거나 우리들이 구축한 시스템에 동시에 탑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문대 선생님들께 CTL에서 실시하는 강의 촬영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해드리지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 개개인의 경우, 예전에 비해 강의 스타일이나 방법에서 많이 현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 매체 활용과 관련해서 교양과목이나 문화 강좌 같은 강의들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면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인문학 전공 분야의 경우 파워포인트로 효율적인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양강좌 워크숍을 지원해 주셔서 몇 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 지원에 호응을 못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호응이 부족한 이유가 콘텐츠의 문제인지 홍보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CTL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는 데 제 생각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CTL의 서비스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시지만 선뜻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강의촬영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선의 여지가 있을 텐데... 요즘은 교무부 학장 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이 직책을 끝내고 나면 교양강의를 대상으로 강의촬영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는 만큼 우리가 보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